

생활체육정책 유형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Sports for All Policy Patterns

조옥연
서울대학교

Woogyeon Jo(woogijo@snu.ac.kr)

요약

본 연구는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정책의 국가 간 상이한 유형을 밝혀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30개 국가 중 관련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국가들의 결정요인을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원인변수로는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26개 국가들을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기준으로 군집화하여 국가별로 유형한 결과 세 가지의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한국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별 생활체육정책의 유형이 발생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한국이 속한 유형은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빈곤율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 중심어 : | 생활체육 | 유형화 | 질적비교분석 | 생활체육참여율 | 스포츠클럽참여율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ports for all through the patterns of sports for all policy and analysis of causal relation of the determinants. To achieve this goal, 26 countries among OECD 30 members which provide useful data sources were selected. The data were analyzed by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with cluster analysis. GDP, leisure time, social expenditure, Gini's coefficient, poverty rate and tax burden ratio were used as casual variables for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ree patterns were examined and Korea was classified into the pattern which has low sports for all participation and sportsclub participation. Second, as a result of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or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sports for all patterns, the pattern in which includes Korea showed that GDP, leisure time, social expenditure, tax burden ratio had negative relationship and Gini's coefficient, poverty rate had positive relationship.

■ keyword : | Sports for all | Pattern |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 Sportsclub Participation |

* 본 연구는 2012년도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음.

I. 서론

그동안 한국의 스포츠 전개는 생활체육의 정책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국가정책에 따라 엘리트체육이 더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 소득증대와 여가시간의 확대로 국민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3][22], 스포츠 활동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도 엘리트체육보다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5]. 생활체육은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조화로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20][23].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생활체육을 국민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여 국가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고 있는 현실이다[1][14]. 이러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한국에서도 생활체육을 통한 개인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생활체육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4].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와 달리 스포츠가 정치적, 경제적 도구로써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적 측면의 역할이 그만큼 강화되었기 때문이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생활체육은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질적 성장 즉, 생활체육의 사회 통합 및 발전적인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부족하였다[18][30][37]. 근본적인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의 기반위에 질적인 측면의 성장에 대한 대안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2]. 따라서 그동안 생활체육의 의미는 건강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을 강조하는데 치중하여 왔지만 이제는 생활체육의 개인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으로서 생활체육에 대한 가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2][33].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생활체육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good)’로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2]. 따라서 현재 생활체육정책은 스포츠의 사회적 효과에 주목하여 스포츠참여가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며 개인의 변화된 행동을 통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됨을 중시하고 있다[26][29][30][32][33].

해외 생활체육 선진국의 경우 현재 스포츠 진흥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체육 분야가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44]. 따라서 사회정책으로서의 생활체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41][44]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다[36][39]. 이와 더불어 스포츠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생활체육정책의 국가 간 유형화를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37][48]. Scheerder, Vanreusel, Taks & Renson[45]은 스포츠의 사회적 계층화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스포츠 참여 정도와 교육수준, 직업, 성별을 요인으로 스포츠참여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계층화현상을 규명하였다. Eikemo, Huisman, Bambra & Kunst[35]는 유럽 23개국을 대상으로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구분에 따라 교육수준과 건강 요인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유형화하여 건강의 차이를 유발하는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생활체육의 유형화 연구는 선진국의 생활체육이 어떠한 지점에 도달해있는지 살펴보고, 생활체육정책의 국가 간 특성과 사회, 경제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7]. 이러한 국가별 생활체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간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형화를 통한 비교연구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17][48]. 특정 국가를 유형별로 분류하게 되면 각 국가의 생활체육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국가별 특징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

히 국가별 유형분류로 끝나지 않고 국가의 변동과 연결시켜 정치, 사회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체육 관련 정책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생활체육 선진 국가들의 생활체육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과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시급한 연구과제이다. 따라서 각국의 다양한 생활체육정책의 특성 및 요인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장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생활체육정책발전을 위한 큰 틀을 구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생활체육 대응전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며, 더불어 각 유형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결합관계를 Ragin[43]이 개발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통해 파악해봄으로써 생활체육정책의 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관련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OECD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취득이 불가능한 터키, 아이슬란드, 스위스, 멕시코 등 4개 국가를 제외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26개국을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OECD 통계자료, Eurostat(유럽공동체 통계청), 그 외 각국의 통계청 자료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공식적인 최근의 통계자료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예외적으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장 근접한 연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국제

자료의 경우 국가별 자료의 수집 연도가 상이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32],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사회변화가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19] 자료의 산출 연도가 동일하지 않아도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43].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위하여 f/s QCA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질적비교분석(QCA)은 일반적인 질적 연구방법과는 전혀 다른 분석방법으로 Ragin[43]에 의해 고안되었다. 먼저 결과변수의 산출을 위하여 분석대상 26개 국가들을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기준으로 군집화 하여 국가별로 유형화하였다. 질적비교분석은 기존의 일반적인 질적 비교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사례중심 분석의 틀을 유지하면서 변수중심 분석의 장점을 흡수하여 계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기법이다[8][43]. 또한 질적비교분석은 개별 국가를 특정 기준에 의해 유형화하여 이질적인 특성들을 일반화하는 방법이므로 유형화를 통하여 이질적인 특성들에 대한 일반화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국가 간 비교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5].

석재은[13]은 질적비교분석의 단계별 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먼저 제 1단계는 변수중심 전략과 같이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 하에 결과변수와 원인변수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분석의 2단계는 질적비교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측정된 변수들을 0과 1의 값을 가진 이분변수로 변환시켜야 한다. 3단계는 이분수로 변환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질적비교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3.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생활체육정책의 국가별 유형화를 통한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요변수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정책의 국가별 유형화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형화에 따른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변수를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도출한 다음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결과변수는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로 구성하였으며, 원인변수는 일반적으로 생활체육환경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화를 위한 결과변수로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국가는 높은 생활체육참여율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 3섹터(비공식영역)에서 실시되는 스포츠클럽참여율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인변수로는 유형화 결과 도출된 유형별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생활체육정책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변수로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을 선정하였다.

표 1. 유형화 및 질적비교분석 변수

구분	항목
결과변수	생활체육참여율 스포츠클럽참여율
원인변수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

1인당 GDP는 분석대상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국민소득의 증가는 생활체육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여가시간은 단순한 자유시간이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간의 적극적인 활용 또는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준비의 개념으로, 여가시간의 증가는 생활체육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22]. 공공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질병이나 빈곤, 노령화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현금이나 사회서비스 등 공적제도에 의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16]. 따라서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생활체육 관련 사회 서비스의 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25],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지

니계수가 높으면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생활체육 참여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12]. 빈곤율은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계층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데, 소득이 중위소득 50%의 절반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6]을 사용하였다. 빈곤율 또한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참여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총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9],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그 만큼 세금부담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생활체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된 변수이다.

III. 결과

본 장에서는 질적비교분석을 위하여 우선 생활체육 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바탕으로 생활체육정책 유형화를 실시하고,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변수를 투입하여 본격적인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1. 생활체육정책 유형화

1.1 생활체육정책 유형화

생활체육참여율 정도는 국가별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국가 간 보고양식이 상이하여 표준화를 위해 생활체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을 조사하여 ‘100-생활체육비참여율’을 사용하였다. 생활체육참여율 국제 자료는 현재 취득이 불가능하나 생활체육비참여율 자료는 국가별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고 국가 간 보고양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로 사용가능하다. 스포츠클럽참여율의 경우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한 시스템이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스포츠클럽에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스포츠클럽참여율을 생활체육동호인 참여율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생활체육참여율의 평균은 67.45%였고, 최대값은 스웨덴(94%), 최소값은 그리스(33%)로 나타났다. 스포츠클럽참여율의 평균은 17.35%였고, 최대값은 노르웨이(36%), 최소값은 미국(1%)으로 나타났다.

표 2. 생활체육참여율 기초통계분석

	국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생활체육 참여율	26	33.0	94.0	67.45	15.105
스포츠클럽 참여율	26	1	36	17.35	9.628

유형화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군집화하여 상위군집은 “1”로 분류하고 하위군집은 “0”으로 분류하였다. 1과 0의 이분 변수를 이용하여 군집화를 시도한 결과는 [표 3]와 같으며, K-평균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3. 생활체육참여율 및 스포츠클럽참여율

국가	생활체육 참여율	소속 군집	스포츠 클럽참여율	소속 군집
한국	54.7	0	6.30[11]	0
일본[10]	74.5	1	15.80	0
미국	67.5[34]	1	1.00[42]	0
캐나다	71.0[31]	1	18.00[38]	0
호주	82.0[28]	1	11.00[27]	0
뉴질랜드[46]	79.0	1	17.90	0
영국	68.0	1	13.00	0
스웨덴	94.0	1	29.00	1
덴마크	82.0	1	31.00	1
노르웨이[47]	89.0	1	36.00	1
핀란드	93.0	1	23.00	1
아일랜드	74.0	1	22.00	1
독일	69.0	1	31.00	1
벨기에	72.0	1	18.00	0
프랑스	66.0	1	22.00	1
네덜란드	72.0	1	30.00	1
오스트리아	71.0	1	25.00	1
룩셈부르크	68.0	1	27.00	1
폴란드	51.0	0	5.00	0
체코	63.0	1	11.00	0
헝가리	47.0	0	5.00	0
슬로바키아	65.0	1	14.00	0
그리스	33.0	0	5.00	0
이탈리아	45.0	0	10.00	0
스페인	58.0	0	13.00	0
포르투갈	45.0	0	11.00	0
평균	67.45		17.35	

* 기타 국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Special Euro barometer: Sport and Physical Activity. 한국의 경우는 생활체육 동호인 비율을 대체하여 사용함.

1.2 유형화 결과

생활체육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한 기준인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에 대해 각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은 군집이 형성되었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은 유형,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으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유형,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비율도 낮은 유형으로 분류되며, 생활체육참여율이 낮고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높은 유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표 4.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의 결합 유형

구분	생활체육 참여율	스포츠클럽 참여율	해당국가
A형	1	1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10개국)
B형	1	0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벨기에, 체코, 슬로바키아(9개국)
C형	0	0	한국,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7개국)
D형	0	1	해당국가 없음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높은 유형(A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평균 생활체육참여율이 77.8%이고, 평균 스포츠클럽참여율은 27.6%를 나타내고 있다. ‘생활체육참여율이 높고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B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생활체육참여율 평균은 71.3%이고, 스포츠클럽참여율의 평균은 13.3%이다.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C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생활체육참여율 평균은 47.6%이고, 스포츠클럽참여율 평균은 7.9%이다.

표 5. 유형별 생활체육참여율 및 스포츠클럽참여율 기초통계 분석

	생활체육참여율			스포츠클럽참여율		
	A형	B형	C형	A형	B형	C형
N	10	9	7	10	9	7
최소값	66	63	33	22	1	5
최대값	94	82	58	36	18	13
평균	77.8	71.3	47.6	27.6	13.3	7.9

2. 생활체육정책 유형의 결정요인 분석

질적비교분석(QCA) 방법을 활용한 결정요인의 분석 과정은 군집분석을 통해 나타난 네 가지 유형을 결과변수로 설정한 후 도출된 원인변수를 투입하여 생활체육 정책의 상이한 유형이 발생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원인변수로는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을 사용하였다.

1.1 원인변수 지표

표 6. 생활체육정책 유형의 결정요인

국가	GDP	여가시간	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
한국	27,658	6,444	7.5	0.312	14.600	20.73
일본	34,132	6,975	18.7	0.321	14,932	17.28
미국	47,186	6,864	16.2	0.381	17.132	19.53
캐나다	38,975	7,181	16.9	0.317	12,048	29.52
호주	38,637	7,027	16.0	0.301	12,393	27.06
뉴질랜드	27,036	6,989	18.4	0.335	10,800	33.72
영국	35,631	7,230	20.05	0.335	8.250	28.89
아일랜드	41,493	7,217	16.3	0.328	14.786	24.4
스웨덴	36,790	7,374	27.3	0.234	5.342	40.79
덴마크	36,808	7,393	26.1	0.232	5.280	47.22
노르웨이	58,717	7,470	20.8	0.276	6.800	42.60
핀란드	35,918	7,243	24.9	0.269	7.330	31.05
독일	35,432	7,282	25.2	0.298	11.040	23.06
벨기에	35,288	7,299	26.3	0.271	8.794	30.17
프랑스	33,090	7,301	28.4	0.281	7.091	20.93
네덜란드	41,063	7,435	20.1	0.271	7.673	24.62
오스트리아	37,858	7,170	26.4	0.265	6.617	30.96
룩셈부르크	84,713	7,219	20.6	0.258	8.100	25.70
폴란드	17,294	6,954	20.0	0.372	14.600	22.93
체코	24,631	7,006	18.8	0.268	5.830	19.96
헝가리	19,732	6,872	23.1	0.291	7.136	27.72
슬로바키아	22,141	6,985	15.7	0.268	8.120	17.56
그리스	28,896	6,977	21.3	0.321	12.613	20.1
이탈리아	31,253	7,224	24.9	0.352	11.400	29.79
스페인	31,455	7,159	21.6	0.319	14.100	21.32
포르투갈	23,283	7,085	22.5	0.385	12.870	23.43
평균	35,581	7,129	20.92	0.302	10.218	26.96

* 자료: OECD(2010). OECD Factbook

투입된 원인변수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GDP의 국가별 평균은 \$35,581, 여가시간의 국가별 평균은 7,129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의 국가별 평균은 20.92%, 지니계수의 국가별 평균은 0.302, 빈곤율의 국가별 평균은 10.218, 조세부담률의 국가별 평균은 26.96%로 나타났다.

1.2 질적비교분석 결과

질적비교분석 마지막 단계는 진리표(true table)를 바탕으로 결과변수와 원인변수를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유형별 방정식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진리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변수들을 0과 1의 값을 가진 이분변수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분변수로 전환하는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각각의 원인변수들을 K-평균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2개의 군집으로 나눈 후 하위 군집에는 0을, 상위 군집에는 1을 부여하였다.

유형별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대문자는 정(正)의 관계, 소문자는 부(否)의 관계를 나타내며, ×는 결합관계(and), +는 대체관계(or)를 의미한다.

- A형 :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킴럽참여율이 높은 유형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킴럽참여율이 높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형(Y1) -

$GDP \times LEISURE \times socx \times gini \times poverty \times tax$
 $GDP \times LEISURE \times SOCX \times gini \times poverty \times Tax$
 두 가지 경로를 포함하는 위의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GDP \times LEISURE \times gini \times poverty (socx \times tax + SOCX \times Tax)$

이 방정식의 경우 GDP, 여가시간, 지니계수, 빈곤율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괄호 속에 있는 '+'로 결합되어 있는 'socx × tax'와 'SOCX × Tax'항은 서로 대체가능한 요인들이다. 즉,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GDP가 높고, 여가시간이 많으며, 지니계수가 낮고, 빈

곤율이 낮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필수적인 요인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수조건들은 두 개의 결합원인, 즉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이 낮거나, 조세부담률이 낮은 첫 번째 결합원인과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이 높거나, 조세부담률이 높은 두 번째 결합원인과 조합을 이룰 수 있다.

- B형 : 생활체육참여율이 높고 스포츠클럽참여율은 낮은 유형

생활체육참여율은 높으나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B형(Y2) -

$$GDP \times leisure \times socx \times GINI \times POVERTY \times tax$$

$gdp \times leisure \times socx \times gini \times poverty \times tax$
두 가지 경로를 포함하는 위의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leisure \times socx \times tax (GDP \times GINI \times POVERTY + gdp \times gini \times poverty)$$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여가시간이 낮고,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이 낮으며, 조세부담률이 낮은 필수적인 요인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수조건은 두 개의 결합원인, 즉 GDP가 높거나, 지니계수가 높거나, 빈곤율이 높은 첫 번째 결합원인과 GDP가 낮고, 지니계수가 낮고, 빈곤율이 낮은 두 번째 결합원인과 조합을 이룰 수 있다.

- C형 :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C형(Y3) -

$$gdp \times leisure \times socx \times GINI \times POVERTY \times tax$$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GDP가 낮고, 여가시간이 낮으며,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이 낮고, 지니계수가 높으며, 빈곤율이 높고, 조세부담률이 낮은 필수적인 요인들을 지니고 있다.

표 7.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진리표

국가명	GDP	여가	SOCX	지니	빈곤	조세	Y
아일랜드	1	1	0	1	1	0	Y1
스웨덴	1	1	1	0	0	1	Y1
덴마크	1	1	1	0	0	1	Y1
노르웨이	1	1	0	0	0	1	Y1
핀란드	1	1	1	0	0	1	Y1
독일	1	1	1	0	1	0	Y1
프랑스	1	1	1	0	0	0	Y1
네덜란드	1	1	0	0	0	0	Y1
오스트리아	1	1	1	0	0	1	Y1
룩셈부르크	1	1	0	0	0	0	Y1
일본	1	0	0	1	1	0	Y2
미국	1	0	0	1	1	0	Y2
캐나다	1	1	0	1	1	1	Y2
호주	1	0	0	0	1	0	Y2
뉴질랜드	0	0	0	1	1	1	Y2
영국	1	1	0	1	0	1	Y2
벨기에	1	1	1	0	0	1	Y2
체코	0	0	0	0	0	0	Y2
슬로바키아	0	0	0	0	0	0	Y2
한국	0	0	0	1	1	0	Y3
헝가리	0	0	1	0	0	1	Y3
폴란드	0	0	0	1	1	0	Y3
그리스	0	0	0	1	1	0	Y3
이탈리아	0	1	1	1	1	1	Y3
스페인	0	1	0	1	1	0	Y3
포르투갈	0	0	1	1	1	0	Y3

이상과 같이 생활체육정책 유형별 결정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높은 유형(A형)의 경우 GDP, 여가시간이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공공사회복지지출(SOCX)과 조세부담률의 경우 국가별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생활체육참여율이 높고 스포츠클럽참여율은 낮은 유형(B형)의 경우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GDP, 지니계수, 빈곤율은 국가별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C형)의 경

우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표 8. 질적분석결과 종합표

	GDP	여가시간	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
A형	+	+	+, -	-	-	+, -
B형	+, -	-	-	+, -	+, -	-
C형	-	-	-	+	+	-

* +는 정의 상관관계, -부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데 +와 -가 함께 나타나 있는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미임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유형화를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높거나 낮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에 속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생활체육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높은 유형(A형)’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북부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과 서부유럽에 속하는 국가들(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부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같은 유형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부유럽에서 생활체육은 오락의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 교육 및 성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 아래 생활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20]라고 할 만큼 국가 차원에서 삶의 질 및 사회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의 생활체육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체육참여율이 높고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B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생활체육참여율이 높으나, 정부지원으로 제 3섹터에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참여율이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높은 유형(A형)’에 속하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생활체육이 공공부분보다는 민간부분의 주도로 실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생활체육참여율에 비해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스포츠클럽 같은 공공주도의 생활체육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주로 민간 위주로 생활체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24]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 위주의 생활체육정책이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높은 생활체육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이 높고 생활체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0][21].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C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다른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스페인의 경우 유형 내에서 가장 높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 유형 내에서 가장 낮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생활체육참여율이 낮고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높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이나 제 3섹터의 개입이 활발한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생활체육참여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주도의 생활체육이 실시될 경우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비용이 줄어들어 생활체육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생활체육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생활체육정책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정책의 국가별 유형을 결정하는 원인변수를 파악해 본 결과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높은 유형(A형)’과 ‘생활체육참여율과 스

포즈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C형)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높은 유형(A형)'에 속하는 국가들이 생활체육 선진국이라고 가정할 때 생활체육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낮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한국이 속한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C형)'의 경우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생활체육의 외양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지니계수와 빈곤율의 경우 사회계층의 격차에 따른 체육격차가 매우 중요한 생활체육의 결정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생활체육참여율이 수년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생활체육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참여율이 낮은 사람들은 낮은 수입, 낮은 교육,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 외재적 장애요인(external barriers)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기부여나 여가시간의 부족 등 내재적인 장애요인(internal barriers)은 주로 높은 교육과 불투칼라 계층에서 생활체육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40]. 따라서 사회적 소외계층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생활체육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생활체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인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여전히 계층별, 소득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차후 복지 측면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가별 GDP, 여가시간 등의 결정요인들이 생활체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니계수와 빈곤율 등의 사회적 양극화가 개별 국가의 생활체육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데 앞으로 이에 대한 학문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한 기준인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에 대해 각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은 유형,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으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유형,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비율도 낮은 유형으로 분류되며, 생활체육참여율이 낮고 스포츠클럽참여율은 높은 유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질적비교분석(QCA)을 통해 생활체육정책 유형별 결정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높은 유형(A형)'의 경우 GDP, 여가시간이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공공사회복지지출(SOCX)과 조세부담률의 경우 국가별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생활체육참여율이 높고 스포츠클럽참여율은 낮은 유형(B형)'의 경우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GDP, 지니계수, 빈곤율은 국가별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C형)'의 경우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형화의 선행적 연구 및 유형화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로 결과변수를 단순화하여 국가 간 생활체육정책을 비교하고 원인변수 설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차후 생활체육정책을 유형화하는 기준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발전적인 국가 간 유형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다양한 생활체육정책의 특성과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내 생활체육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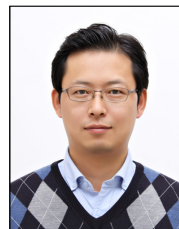
-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스포츠 7330 이것이 생활체육이다, 2007.
- [2] 권순용, “사회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재개념화”,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3권, 제4호, pp.13-28, 2010.
- [3] 김경식, 김평수, 김찬선, “민간경비원의 여가제약과 생활체육 참가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12호, pp.167-178, 2007.
- [4] 김권일, 김미량, 이제홍,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스포츠복지모델 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40권, pp.197-205, 2010.
- [5] 김사엽, 스포츠사회복지론, 서울: 21세기교육사, 2006.
- [6] 김용하, 임성은, 윤강재, 우선희,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7] 김정명, “청소년의 ‘삶과 질’과 사회체육의 역할”, 제10회 한국사회체육학회 학술세미나집, 1996.
- [8] 김철주, “복지체제의 유형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일연구: 탈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0권, pp.63-85, 2004.
- [9] 라석권, “조세부담률”, 고시계, 제37권, 제10호, pp.325-327, 1992.
- [10] 문화체육관광부, 2008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2009.
- [11] 문화체육관광부, 2010 체육백서, 2011.
- [12] 백윤철, 김한양, “한국에서 장애인의 스포츠실태와 스포츠권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4호, pp.299-327, 2009.
- [13] 석재은, “장기요양보험 공급주체적 역할분담 유형의 질적비교분석”, 사회보장연구, 제15, 제2호, pp.1-42, 1999.
- [14] 신재휴, “스포츠 시설을 통한 도시의 스포츠 복지 인프라 구축 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4권, 제5호, pp.237-248, 2003.
- [15] 안상훈, “비교사회정책 연구방법론의 서설적 이해”, 상황과 복지, 제13권, pp.47-71, 2002.
- [16] 안상훈, 백승호, “한국 복지국가 지출변화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37권, pp.117-144, 2008.
- [17] 안상훈, 정해식, “복지지위와 사회의 질”,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3호, pp.93-121, 2010.
- [18] 안홍균, “삶의 질, 운동 그리고 체육복지”, 15회 국민체육진흥 세미나집, 1996.
- [19] 양승일, 정책변동론, 서울: 양서원, 2006.
- [20] 위성식, 권연택, 사회체육학총론, 서울: 대경북스, 2010.
- [21] 이정학, 스포츠와 사회복지, 서울: 대한미디어, 2006.
- [22] 이정학,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여가스포츠”,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50-164, 2007.
- [23] 임변장,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제12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집, 1993.
- [24] 체육과학연구원, 선진국 체육정책의 동향과 추진체계, 2004.
- [25] 최희경,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유형과 한국의 복지체제”, 한국행정논집, 제15권, 제4호, pp.835-858, 2004.
- [26] P. S. Adler and S. W. Kwon,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n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7, No.1, pp.17-40, 2002.
- [27]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10 Participate in Sport and Physical Recreation Australia, 2010.
- [28]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Participation in Exercise, Recreation and Sport Survey 2009, 2010.
- [29] R. Berger-Schmitt, “Considering social cohesion in quality of life assessments: Concept and

- measur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58, pp.403-428, 2002.
- [30] C. Burnett,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sport development,"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36, No.1, pp.41-57, 2001.
- [31] Canadian Fitness and Lifestyle Research Institute, 2008 Physical Activity Monitor, 2009.
- [32] F. Coalter, *A wider social role for sport: Who's keeping the score?*, London: Routledge, 2008.
- [33] M. Collins and T. Kay, *Sport and social exclusion*, London: Routledge, 2003.
- [34]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0.
- [35] T. A. Eikemo, M. Huisman, C. Bambra, and A. Kunst, "Health inequalities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 in different welfare regimes: a comparison of 23 European countries,"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Vol.30, No.4, pp.565-582, 2008.
- [36] A. Gosl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s a Fundamental Aspect of a 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South African Communities," *Journal of Sport Management*, Vol.10, No.2, pp.207-217, 1996.
- [37] K. Heinemann, "Sport and the welfare state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Sport Science*, Vol.5, No.4, pp.181-188, 2005.
- [38] F. Ifedi, *Sport Participation in Canada 2005*, 2008.
- [39] I. Lindsey, "Conceptualising sustainability in sports development," *Leisure Studies*, Vol.27, No.3, pp.279-294, 2008.
- [40] M. Lindström, M. Moghaddassi, and J. Merlo, "Social capital and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a population based multilevel analysis in Malmö," *Sweden,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Vol.57, pp.23-28, 2003.
- [41] J. Palm, *Sport for all: Approaches from utopia to reality*, Schorndorf: Karl Hofmann Gmbh & Co, 1991.
- [42] U. Pühse and M. Gerbe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hysical Education*, 2005.
- [43] C. C. Ragin, *The comparative metho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 [44] E. Roy, "Aiming for inclusive sport," *Entertainment and Sport Law Journal*, Vol.5, No.1, pp.1-12, 2007.
- [45] J. Scheerder, B. Vanreusel, M. Taks, and R. Renson, "Social sports stratification in Flanders 1969-1999. Intergenerational reproduction of social inequalitie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37, No.2, pp.219-245, 2002.
- [46] *Sport and Recreation New Zealand, 2007/2008 Active New Zealand Survey*, 2008.
- [47] *Statistics Norway, Culture Statistics 2008*, 2010.
- [48] C. V. Tuyckom and J. Scheerder, "Sport for all? Insight into stratification and compensation mechanism of sporting activity in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Sport, Education and Society*, Vol.15, No.4, pp.495-512, 2010.

저 자 소 개

조 옥 연(Woogyeon Jo)

정회원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졸업
- 2008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 강사

<관심분야> : 스포츠 정책, 스포츠 사회학